

중국의 소셜웬교육에 대해

上海師範大學社會學研究所 所長 蔡麟

본 발표에서는 중국의 소셜웬교육의 개략을 소개하도록 한다.

1. 90 년간의 경과

중국의 소셜웬교육은, 1920 년대부터 교회의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좌절, 신생, 비약적 발전으로 볼 수 있는 이 90 년간은 1920 년 초반부터 50 년대 초반까지와, 1980 년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922 년, 燕京대학에 사회학계가 설치되어 응용사회학의 교육과정에 ‘사회복무’라는 과정이 개설되었다. 여기서 ‘사회복무’는 소셜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1940 년에는 金陵대학 사회계열에 ‘사회공작(소셜웬)’전공이 개설되었다. 이후, 1949 년에는 소셜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20 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은 소비에트의 영향을 받아 사회학 및 소셜웬교육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해졌다. 1950 년 6 월에 개최된 전국고등교육의회에서, 소비에트의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우리 대학에서 두 가지 사상의 공존은 허락할 수 없으며, 자산계급의 사회학과 역사유물론은 양립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光明日報』 1950 년 6 월 8 일) .

이후, 1952 년에 중국의 대학과정에서 사회학계는 단 2 개소만 남았으며, 1 년 후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사회학계는 없어져, 이 시기에 중국에서 소셜웬의 대학교육은 철폐했다고 볼 수 있다.

1970 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사회학 및 소셜웬에 교육과정이 다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79 년, 사회학분야의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다시 대학에 이러한 교육과정이 개설되게 되었다. 6 년이 지난 1985 년에는 소셜웬을 대학에서 다시 교육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 10월에 완성된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보통고등학교 사회학과의 학부교육 명단’에는, ‘사회공작과 관리’라는 학과가 개설되었다. 또한, 1989년, 北京 대학은 ‘사회공작’전공의 학부생과 석사과정학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中国青年政治学院이 ‘사회공작과 관리계’를 개설하였다.

중국에서는 1999년 시점에서 ‘사회공작’이라는 전공을 개설한 대학이 28개소였으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27개 대학에 이러한 전공이 개설되게 되었다.

2. 현황

여기에서는 교육의 실태를 위상, 교육과목, 중국사회공작교육협회, 사회공작전문직화 라는 시점에서 중국의 소셜웍에 대한 대학교육의 현황을 기술하기로 한다.

1) 대학교육에서의 소셜웍교육의 위상

교육부가 제시한 학부의 학과리스트에서 ‘법학학과’에 속하는 ‘사회학문류’에는 ‘사회학’과 ‘사회공작’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원의 학과리스트에는 ‘일급의 학과’로서의 ‘사회학’은 ‘법학문류’에 속한 것으로, 그 아래에 ‘사회학’, ‘인류학’, ‘인구학’, ‘민속학’이라는 4개의 ‘2급의 학과’가 기재되어 있다. 즉, ‘사회공작’은 독립전공으로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일부의 대학은 ‘사회학’ 또는 ‘사회보장학’의 틀 속에서 ‘사회공작’전공의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SW」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일부 대학에서 독립전공으로 개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 소셜웍의 학부교육과정

이하의 11 과목은, 고등학교 사회학학과 교학지도위원회가 정한 소셜웍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10)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11)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